

하는 것이다. 이러한 자연스러운 성숙의 과정에서 라 투르 부인은 자연의 말을 듣기를 꺼리고, 비르지니의 사랑을 도덕적 금기로 해석하며, 딸의 미래에 대한 염려로 인해 결국 공동체에 의구심을 품고 분지 바깥으로 도움을 요청한다. 이 요청의 결과 유럽의 사회악은 돈, 정치 권력, 종교라는 축으로 각기 이모, 총독, 신부를 내세워 이 작은 낙원의 존립을 불가능하게 한다.

이 작은 낙원의 종말은 우리를 소설의 시작점으로 되돌린다. 사실 폴과 비르지니의 기구한 사연은 두 가족 공동체가 폐허로 돌아간 후, 한 목격자의 기억으로만 남아 이야기되고, 그렇게 자연과 덕성에 따라 살기 위해 타락한 세상에서 물러난 이들의 작은 공동체는, 그들이 받아 마땅한 지상의 행복에 대한 본보기였지만 결론적으로는 폐허, 즉 현재는 존재하지 않으나 과거 어느 시점에, 말하자면 어느 황금시대에 존재했을 어딘가로 그려진다. 그래서 작품은 전반적으로 진정한 행복은 다른 곳에 있다는, 아마도 이 세계에는 더는 없을 것이라는 다소 우울한 관조를 담고 있다. 다만 두 세계의 경계에서 폐허가 자아내는 이러한 거리감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지켜낸 순결한 사랑의 원리를 한층 더 숭고하게 기억하도록 해준다는 점에서 일종의 미학적 거리감에 해당하며, 특히 비르지니의 죽음 이후 황폐해진 가족을 바라보며 그 죽음을 해석하는 노인의 시선에서도 이 거리감은 특별한 역할을 한다.